

총무원장스님 치사말씀

기록이 있어야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불교 1700년의 장구한 역사는 많은 문화재와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기록문화재들은 1700년을 함께해 온 우리 민족의 자산이며 불교역사의 초석을 이룹니다.

불교기록은 문화재입니다. 장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형성된 불교기록들이 전란을 거치면서 소실된 경우가 많습니다. 역대 스님들과 신도들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면면히 내려오는 기록들을 더욱 소중하게 간직하고 후세에 전승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근현대 불교기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개화기 이후 근현대 기록물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흔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큰스님들께서 입적하시고 지금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역대 스님들께서 이뤄내셨던 정신문화 역사를 부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행을 근간으로 일평생을 사셨던 스님들의 정신문화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종단은 사라져가는 근현대기 불교기록물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생활 속의 기록들을 종단 역사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큰스님들의 유업을 종단에서 계승하여 그 정신을 오늘을 사는 불자들의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그동안 종단은 중앙기록관과 불교신문사를 통해서 꾸준한 역사기록 수집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단 한 장의 기록도 불교의 역사입니다”를 표어로 삼아 수집활동을 전개하던 중, 인연이 닿은 석계 유성갑 선생의 장남 유대진 선생이 일평생을 소중하게 간직해오던 부친의 유품을 기증하기로 마음을 내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종단 품에서 본래 가시고자 하셨던 스님의 길을 유품으로나마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운의 큰 꿈을 품으셨던 마음을 후손들이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소중하게 간직해온 기록을 종단에 기증해주신 유대진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마음에 묻었던 모든 짐을 부처님 전에 회향하시고 고귀한 청운의 뜻을 널리 법계에 회향 올립니다.

불기2555(2011). 11. 4.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